

□ 연구논문

식민지의 ‘위대한’ 역사와 제국의 위상: 와다 유지(和田雄治)의 조선기상학사 연구*

미야가와 타쿠야(宮川卓也)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I. 머리말

II. 와다의 생애와 조선기상학사 연구

III. 조선인의 대변자로서의 역사연구

IV. 일본사로서의 조선기상학사

V. 맺음말

I. 머리말

1904년 러일전쟁 발발과 동시에 일본이 조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부터 한반도의 군사적 요지에서 기상관측의 책임자를 맡은 와다 유지(和田雄治, 1859-1918)는 조선기상학사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이 주제를 독자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¹⁾ 메이지 일본의 대표적 기상학자 와다는 조

* 이 연구는 2009년도 및 2010년도 서울대학교 BK21 과학기술과 사회문화 연구인력 양성 사업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또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특히 유용한 조언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임종태 선생님(서울대학교), 오가사와라 히로키 선생님(小笠原博毅, 일본 고베대학), 신창건 선생님(愼蒼健, 일본 도쿄이과대학), 홍성주 선생님, 서민우 학형, 김봉국 학형 및 전찬미 학형(서울대학교), 그리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1) 일본이 러일전쟁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본격적 기상관측을 시작한 과정에 대해서는 Takuya Miyagawa, “The Meteorological Observation System and Colonial Meteorology in Early 20th-Century Korea,” *Historia Scientiarum* Vol. 18, No. 2 (2008), pp. 140-150을 참조.

선시대, 특히 세종대에 이루어진 측우기를 이용한 우량관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조선에서 우량관측 제도를 전도(全道)에 시행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471년 전의 일로, 구주(歐州) 로마보다 200년 앞서고 에도(江戸)보다 280년 이르다는 사실은 실로 경탄하는 수밖에 없다. 하물며 그 방법이야 지나(支那) 또는 타국에서 전래된 것이 아니어서, 전연 세종왕의 성의(聖意)로부터 나온 것이며, 심지어 오늘날 우량계에 비해서도 그 정조(精粗)에 심한 경정(逕庭: 격차)을 찾지 못한다.²⁾

왕조실록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기상기록에 관한 방대한 사료를 ‘발견’한 와다는, 세계 최초의 연속적인 우량관측이 세종대 이후 제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조선시대 우량관측 제도에 대한 와다의 감탄과 칭찬은 그가 쓴 다른 글들에서도 자주 나타났는데, 그의 감동은 단지 역대 조선 임금에 대한 칭찬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유감스럽게도 측우기 창설 이래 간혹 「실록」 중에 기재가 있긴 하되 연속된 일지 같은 것은 영조 35년 이후 경성에 관한 것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140여 년 간 계속된 우량관측은 경성을 제외하고 아직 타국에서 보지 못한 것이며, 로마나 파리와 같이 [관측제도가] 비교적 일찍 창설된 곳에서도 역시 130년이 넘지 않았음을 생각한다면, 경성에서의 140여 년 간의 우량관측 성적은 실로 세계 유일한 자료이자 우리나라[我國]가 크게 자랑스러워하는 바이다.³⁾

와다는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우량관측 및 기록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을 뿐 아니라, 그 역사를 일본사의 일부처럼 표현했다. 이와 같은 서술은 당시 많은 일본인들이 가졌다고 하는 조선에 대한 일반적 인식, 곧 조선에 대한 멸시와 거리가 먼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조선을 일본으로 포섭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정책, 곧 동화정책과 합치하는 것이기도 하다.⁴⁾ 와다의 역사서술에서 나타난 이와

2) 和田雄治, “朝鮮測候史略”, 朝鮮總督府觀測所, 『朝鮮古代觀測記錄調查報告』 (1917), 170쪽.

3) 和田雄治, “朝鮮測候史略”, 170-171쪽, 강조는 인용자.

4) 제국일본에서 ‘동화(정책)’라는 개념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포괄적으로 정리·고찰한 글로서, 駒込武, 『植民地帝國日本の文化統合』 (東京: 岩波書店, 1996), 11-24쪽을 참조할 것. 또 영제국과 일본제국을 비교하면서 일본의 ‘동화’ 개념을 설명한 연구로, 박지향, 『제국주의: 신화와 현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259-278쪽.

같은 이중적 성격은 무엇을 뜻하며, 또 이런 이중성이 나타났던 데에는 어떤 역사적 맥락이 작용한 것일까? 그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크게 자랑스러워하는 바”라고 말하게끔 한 요인은 무엇이며, 이 말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이 글은 제국일본의 관료이자 기상학자인 와다 유지의 조선기상학사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그가 식민지의 역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조선이라는 ‘타자’를 어떻게 설정하고 인식했는지, 식민지의 ‘눈부신’ 과학의 역사를 제국의 역사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했는지 등과 같은 문제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시 제국일본의 아시아관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 동양사 연구 동향이 와다의 역사서술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졌는지 고찰한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이 논문은 세계 어느 문명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조선의 우수한 기상관측 기록을 ‘발견’한 와다가, 이를 조선사의 맥락에서 논의하기보다는 1904년부터 일본에 의해 시작되는 근대적인 형태의 기상관측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역사서술 방법을 취했음을 보일 것이다. 그 결과 와다의 시도는 식민지의 ‘위대한 업적’을 제국일본의 역사로 전유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으며, 그것은 나아가 식민지 통치를 위한 제국의 실용적인 필요성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동양의 ‘대표자’로서 일본이 서양에 대해 가지고 있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와다의 조선기상학사 연구를 다룬 글들은 대체로 그의 업적을 소개하는 수준이었다. 이를테면 전영신과 임정혁의 글들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한국천문·기상학사를 개관한 전상운 역시 와다의 업적을 간략히 언급하거나 인용했을 뿐이다.⁵⁾ 이들 연구는 모두 와다의 기상학사 연구가 최초로 한국과학사를 조명한 업적이었다는 점에 동의하며 이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의 연구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혹은 그것이 한국과학사 연구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등과 같은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 선행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와다에 의한 조선기상학사 연구는 최초의 한국과학사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의 역사연구를 당시의 맥락 속에서 검토하는 일은 한국과학사 연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5) 전영신, “와다의 첫 작품”, 『대기』 (한국기상학회지) 11권 4호 (2001. 12), 9-10쪽; 임정혁, “和田雄治의 조선기상학사연구: 측우기와 강우량 관측기록조사”, 『한국과학사학회지』 27권 2호 (2005), 109-129쪽; 전상운, “韓國天文氣象學史”,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韓國文化史大系Ⅲ: 科學技術史』 (1965), 587-679쪽; 『韓國科學技術史』 (정음사, 1976), 126-147쪽.

II. 와다의 생애와 조선기상학사 연구

와다의 생애⁶⁾

1859년 니혼마츠 번(二本松藩) 하급 사무라이 집안의 6남으로 태어난 와다 유지는 10세까지 니혼마츠에서 한학(漢學)을 공부하다가, 1870년(페이지 3)에 도쿄로 상경해 대학남교(大學南校, 후에 도쿄대학)에 입학하여 프랑스어와 보통학(일반교양)을 배웠다. 1877년 도쿄대학 이학부 불어물리학과에 입학했으며 1879년 7월에 졸업하여 이학사 학위를 받았다. 도쿄대학을 졸업한 직후 그는 내무성 지리국 판임 어용괘(御用掛, 당시 기상관측을 담당한 부서)에 임명되어 측량과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⁷⁾ 당시 측량과는 아라이 이쿠노스케(荒井郁之助, 후에 초대 중앙기상대장)가 과장을 맡고 있어 와다는 그 밑에서 근무했다. 물리학과를 졸업했다고는 하지만, 와다는 기상학에 관한 전문 지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실무를 맡기보다는 기상학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시간을 주로 할애했다. 기상학 학술잡지인 『기상집지(氣象集誌)』를 보아도 이 시기에 와다가 투고한 글을 찾아볼 수 없다.⁸⁾

와다는 1880년대 중반부터 기상학자 및 기술관료로서 본격적으로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 그가 맡은 업무와 주된 관심은 폭풍경보와 홍수경보였고 특히 폭풍경보에 큰 관심을 보였다. 1881년부터 1891년까지 독일에서 온 지리국 고용외국인 엘빈 크니핑(Elvin Knipping) 아래서 와다는 기상관측 및 예보와 같은 실무를 익혀나갔다. 특히 그는 폭풍경보와 일기예보를 실시하려는 크니핑의 작업을 도왔고, 그 결과 그들은 1883년에 일본에서 최초로 폭풍경보를 발표했다.⁹⁾ 와다는 1886년

6) 와다 유지의 생애에 관해서는 다음 글들을 주로 참조했다. 『氣象集誌』 37권 2호 (1918), 권두 말, 쪽수 없음; 日本 氣象廳, 『氣象百年史 資料編』 (1975), 433-434쪽; 荒川秀俊, 『日本氣象學史』 (東京: 河出書房, 1941), 113-115쪽; 岡田武松, 『氣象學の開拓者』 (東京: 岩波書店, 1949), 68-72쪽.

7) 이때 와다가 지리국에 취직할 수 있던 것은 도쿄대학을 같이 졸업한 나카무라 기요오(中村精男, 후에 제3대 중앙기상대장)가 그의 친척이며 당시 지리국장을 맡고 있었던 시나가와(品川) 자작에게 추천해 준 덕이었다. 岡田武松, 『氣象學の開拓者』, 69쪽.

8) 단 하나의 예외가 공회의사록(公會議事錄)이지만 이는 와다의 연구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電氣力一定公會議事錄”, 『氣象集誌』 1권 1호 (1884).

9) 日本 氣象廳 『氣象百年史 資料編』, 75-78쪽; 크니핑이 일본에서 한 활동에 관해서는 小

에 내무기사(內務技師)가 되었고, 1889년 7월 그의 인생에서 큰 전기가 된 프랑스 유학을 떠났다.

파리 소르본대학(Sorbonne)에서 기상학과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와다는 파리 센(Saine) 강에서 실시되고 있던 홍수경보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유학 시절에 프랑스를 비롯하여 세계 각지의 기상대와 연구소를 찾아가 견문한 일들을 “서유잡담(西遊雜談)”이라는 제목으로 『기상집지』에 14차례에 걸쳐 연재했는데, 그 목적은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사업 가운데 유용하고 일본에도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권장하는 데 있었다. 그 기사들에는 각 관측소에서 사용되던 관측기기들과 더불어 각지에서 실행된 폭풍경보와 홍수경보에 관한 언급이 많았다. 와다는 프랑스 유학 시절 일본에서 자주 발생한 폭풍과 홍수라는 재앙을 어떻게 예방하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고민했고, 프랑스에서 실행되고 있던 홍수경보 제도를 하나의 대안으로 여긴 것이다. 수해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이후 그의 연구에도 반영되었으며 그것은 귀국 후 홍수경보에 관한 논문을 잇따라 발표한 데서 엿볼 수 있다.¹⁰⁾

1891년 프랑스에서 돌아온 와다는 임기가 끝난 크니핑의 뒤를 이어 중앙기상대 예보과장으로 복직했고 이때부터 그는 관료이자 기상학자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1904년에 한반도로 파견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기상집지』에 투고한 글은 60편이 넘는데, 그의 주 관심은 여전히 폭풍경보와 홍수경보에 있었다. 프랑스에서 실시되던 홍수경보를 소개하면서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고,¹¹⁾ 1901년에는 잦은 폭풍(태풍)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위기의식이 낮았던 일본인, 특히 철도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려는 의도에서 『폭풍약설(暴風略說)』을 썼다.¹²⁾ 『폭풍약설』에서 그는 폭풍의 구조를 자세하고도 쉽게 해설하면서 그 위험성을 강조했고 경보체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즉, 와다는 홍수나 폭풍 등 수해를 예방하는 데 큰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고,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듯이 이는 후에 조선기상학사를 연구하게 될 동기가 되기도 했다.¹³⁾

關恒雄, 北村智明 譯編, 『クニッピンクの明治日本回想記』(東京: 玄同社, 1991)를 참조할 것.

10) 和田雄治, “佛國ノ洪水警報”, 『氣象集誌』 10권 8호 (1891), 430-438쪽; “佛國ノ洪水警報”, 『氣象集誌』 10권 9호 (1891), 483-490쪽.

11) 예컨대 和田雄治, “洪水警報 中央氣象臺ニ於テ”, 『氣象集誌』 10권 10호 (1891), 524-530쪽.

12) 和田雄治, 『暴風略說』(遞信省, 1901).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이 발발하자, 같은 해 3월 5일 와다에게 한반도 파견 명령이 내려졌다.¹⁴⁾ 한반도의 군사적 요지인 인천 등지에 임시관측소가 설치되었고 와다는 임시관측과장을 맡아 한반도 기상관측을 통괄했다. 1907년 3월부터는 통감부관측소장, 1910년 총독부관측소장으로 호칭은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업무에는 변함이 없었고 1915년에 건강문제로 관측소장을 사직해서 귀국할 때까지 그는 한반도 기상사업의 확대를 추진했다.¹⁵⁾

귀국 후에도 와다는 홍수경보 실시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졌다. 임업시험장의 위촉으로 하천에서의 홍수경보 방법을 조사했고 그 성과는 『토목학회지(土木學會誌)』에 게재되었다.¹⁶⁾ 이 보고서는 와다의 홍수경보에 관한 연구를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아라카와(荒川)강의 계절별 수량 측정에 관한 방정식을 제시하면서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우량관측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보고서가 나온 1년 뒤인 1918년 1월, 와다는 58세로 생애를 마쳤다.

조선기상학사 연구

와다의 생애를 한반도로 온 시점에서 전후로 나누어 각 시기의 경향을 본다면 전반기는 폭풍경보와 홍수경보에 관한 연구와 이를 실시하는 데 애썼던 반면, 후반기에는 조선기상학사에 관한 연구가 그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그가 한반도에 파견된 이후부터 시작한 조선기상학사 연구의 결과는 1910년 2월에 발표한 『韓國觀測所學術報文 第一卷』(이하, 『학술보문 제1권』으로 줄임)¹⁷⁾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이 책은 세종 및 영조 시대 측우기, 경주 첨성대, 누각(漏刻) 등을 사진

13) 1890년대 와다의 활동은 독자적인 연구뿐 아니라 기상학 교육과 새로운 관측사업 개척으로 확장되었다. 예컨대 일본 근해 해류 조사, 산악에서 고지 기상관측, 기상관측연습회 설립과 기상 인력 양성, *Geophysical Magazine* 창간 등이 대표적이다. 1890년대 와다의 활동에 관해서는 宇田道隆, 『海洋研究發達史』(東京: 東海大學出版會, 1978), 297-298쪽; 岡田武松, 『氣象學の開拓者』, 70쪽; 岡田武松, “和田雄治先生の偉績”, 『測候瑣談』(東京: 鐵塔書院, 1933), 80쪽 등을 참조할 것.

14) 明治三十七年 勅令 第60號 (1904), 『氣象集誌』 23권 4호 (1904), 120-121쪽.

15) Takuya Miyagawa, *op. cit.*, pp. 141-145.

16) 和田雄治, “荒川出水調査報告”, 『土木學會誌』 3권 6호 (1917), 1629-1692쪽.

17) 大韓帝國 農商工部 觀測所, 『韓國觀測所學術報文 第一卷』(1910). 조선이 ‘병합’되기 직전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책 제목이 ‘한국’으로 시작되어 있다.

과 함께 소개한 한국 기상·천문학사에 관한 최초의 연구이다.¹⁸⁾ 이 책의 구성은 뒷부분에 측우기 등에 관한 글들이 영어, 불어, 독일어로도 쓰여 있는 점에서 후에 출간될 두 권의 조선기상학사 책들과 다르다. 후술하듯이, 여러 언어로 글을 쓴 것은 와다가 조선의 관측기록을 “과학사에서 중요한 자료”로 생각했기 때문이며, 덕분에 이 책은 세계 기상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의 내용은 『기상집지』와 조선총독부 기관지 『朝鮮』에도 거의 그대로 게재되어,¹⁹⁾ 일본 기상학자나 고고학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²⁰⁾

『학술보문 제1권』을 발표한 당시는 대한제국의 주권이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고 있던 시기였기에, 와다는 조선시대 기상관측에 관한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가 글을 쓰는 데 이용한 자료 또한 『文獻備考』, 『風雲記』, 『天變單子臚錄』 뿐이었다. 하지만 ‘병합’ 이후 대한제국 정부가 소유하던 『王朝實錄』, 『書雲觀誌』, 『日省錄』, 『承政院日記』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된 와다는 과거 500년 동안의 천변지이 기록을 정리하고 우량기록도 조사할 수 있었다.²¹⁾

천변지이 기록 중 지진에 관한 것만 추출해서 정리한 것이 1912년에 간행한 『朝鮮總督府觀測所學術報文 第二卷』(이하, 『학술보문 제2권』으로 줄임)²²⁾이다. 이 책은 인천관측소 및 경성측후소 직원들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지진에 관한 고문헌 자료를 조사한 것으로 모두 일본어로 쓰여 있고 사진자료는 없다. 오카다 다케마쓰(岡田武松, 제4대 중앙기상대장)에 의하면 이 책이 나온 이듬해에 와다는 한반도의 지진에 관해 쓴 논문(“朝鮮古今地震考”)으로 도쿄제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²³⁾ 이 연구는 한반도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한반도에서도 지진이 일어난 적 있다는 사실을 『三國史記』 등 고문헌을

18) 침성대에 관해서는 이미 도쿄제국대학 고고학자 세키야 다다시(關屋貞)가 소개한 바 있었다. 關屋貞, “韓國慶州に於ける新羅時代の遺跡”, 東洋協會調查部, 『東洋協會調查部學術報告 第一冊』(東京: 東洋協會, 1909; 東京大學, 1967 재발행), 77-128쪽.

19) 和田雄治, “世宗英祖兩朝の測雨器”, 『氣象集誌』 29권 3호 (1910), 81-87쪽; “朝鮮古代의觀測記錄”, 『氣象集誌』 29권 11호 (1910), 285-286쪽; “朝鮮古代의觀測”, 『氣象集誌』 31권 5호 (1912), 261-277쪽; “世宗英祖兩朝の測雨器”, 『朝鮮』 25권 (1910. 3), 25-28쪽 등이 있다.

20) 古谷清, “『韓國觀測所學術報文 第一卷』ヲ讀ム”, 『考古學雜誌』 1권 12호 (1911), 59쪽.

21) 和田雄治, “朝鮮古代の觀測記に就て”, 『氣象集誌』 30권 1호 (1911), 305-312쪽.

22) 朝鮮總督府觀測所, 『朝鮮總督府觀測所學術報文 第二卷』(1912).

23) 大日本博士錄編輯部 編, 井關九郎 監修, 『學位大系博士錄』(東京: 發展社出版部, 1939) 중 “理學博士” 5쪽에서 “朝鮮古今地震考”로 박사학위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해서 확인했다. 두 권 이외에도 『기상집지』와 총독부관측소가 발행한 『日用便覽』, 『氣象講話會報』 등에도 관련된 글들을 몇 편 투고했다.

사실 1910년과 1912년에 발행된 두 『학술보문』은 사료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소개’의 성격이 강했다. 예를 들어 『학술보문 제1권』에서 세종 때 측우기가 제작되고 조선 각 지역에 설치된 부분에 관해 『文獻備考』 “象緯考 儀象”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했다.

지금으로부터 468년 전인 세종 24년에 이와 같이 측우기(요즘은 주로 우량계라고 말한다)를 제작하고 측우대(測雨臺)를 경복궁 내 서운관에 만들어서 비가 올 때마다 주적으로 빗물의 심천(深淺)을 측량시키셨을 뿐 아니라, 같은 모양의 기구를 각 도, 각 읍에 배치시키신 것은 실로 경복(敬服)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더욱이 당시는 유럽에서조차 아직 우량 관측이 없었다.²⁴⁾

이와 같이 한문 원전을 그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석과 분석을 한다기보다 원문의 내용을 일본어로 요약하면서 세종 및 영조 시기 업적들을 소개하고 놀라움을 표하는 서술 형식은 『학술보문』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1910년대 전반에 발표한 글들과 새로 쓴 글을 묶어 1917년 7월 간행된 책이 『朝鮮古代觀測記錄調查報告』²⁵⁾ (이하, 『조사보고』로 줄임)로서, 이는 와다의 조선 기상학사 연구를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 9장 가운데 6개 장은 이미 발표한 글들을 다시 실은 것들이며, 나머지 3개 장은 이전에 쓴 글들을 보완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와다가 새로 쓴 3개 장 가운데 하나는 “조선 고대의 우량관측 보유(朝鮮古代ノ雨量觀測補遺)”이다.²⁶⁾ 이 글은 와다가 조선시대 우량관측제도와 측우기를 간략히 소개한 첫 작품인 “세종 영조 양조의 측우기(世宗英祖兩朝ノ測雨器)”(『학술보문 제1권』)를 보완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학술보문 제1권』 출간 당시 와다가

24) 和田雄治, “世宗英祖兩朝ノ測雨器”, 『韓國觀測所學術報文 第1卷』, 27쪽. 와다가 인용한 부분은 『文獻備考』 2권 “象緯考 儀象”: 二十四年製測雨器 鑄銅爲器 名曰測雨 長一尺五寸 圓徑七寸 築臺書雲觀 置器臺上 每雨後本觀官員 以周尺量水深分寸 隨即啓聞 又 以測雨器制及周尺式 頒于諸道 使列邑 各造一件 置客舍庭中 每雨後 守令親審水深分寸 啓聞. 와다가 과학자임에도 방대한 한문 문헌들을 읽고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한문을 배운 지적 배경 덕택이었다. 岡田武松, 『氣象學の開拓者』, 68쪽.

25) 朝鮮總督府觀測所, 『朝鮮古代觀測記錄調查報告』 (1917).

26) 和田雄治, “朝鮮古代ノ雨量觀測補遺”, 『朝鮮古代觀測記錄調查報告』, 8-29쪽.

참조할 수 있었던 사료는 한정되어 있었지만, ‘병합’ 이후 풍부한 자료를 확보한 그는 세종이 정비한 우량관측 제도를 상세히 알 수 있었다. 『왕조실록』이나 『서운관지』 등을 주로 인용하면서 와다는 세종에 의한 관측제도 창시, 영조에 의한 제도 부흥 과정, 관상감의 관측 규정 등을 소개했는데, 『학술보문 제1권』에서처럼 그가 특히 관측제도에 큰 관심을 가졌고 이를 높이 평가했다는 점은 변함없었다. 이는 그가 “우량관측 보유”에서 제도에 관한 서술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는 점이나 그 설명도 다른 내용들보다 자세히 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가 특히 주목한 점은 『서운관지』에 기록된 “관측규정”이며 여기에는 관측사항, 보고 형식 등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상세한 규정에 대해 와다는 “오늘날 기상관측법이라 칭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음은 대단히 경복(敬服)해야 한다”고 말했다.²⁷⁾

다음으로 “최근 140년간의 경성 우량(最近140年間ノ京城雨量)”이라는 글에서 와다는 영조 이래 남겨진 경성의 우량관측 기록을 현대식 단위로 환산하여 140년간의 월별 평균 우량을 계산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경성의 기후를 분석했다.²⁸⁾ 우선 그는 통감부가 설치된 후 일본인 기사가 관측을 시작한 경성측후소(전 관상소)의 1907년의 월별 우량기록과, 그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던 1770년 이후 136년간 월별 우량기록을 비교했는데, “엄격한 학술적인 견지”에서 측정위치나 단위 등을 보았을 때 “구식”인 관상감의 기록은 신빙성이 떨어져 수치를 보정할 필요가 있었다.²⁹⁾ 이는 1881년에서 1905년까지 25년간의 기상기록을 평균치로 삼은 만국기상회의(International Meteorological Congress)의 결정을 따라 관측 단위 등을 맞춘 것인데 와다는 “구식”과 “신식”으로 측정된 각 우량기록을 비교하여 “구식” 기록의 수치를 “신식”에 맞추기 위한 계수를 알아내 통일된 우량기록 수치를 계산했다. 이 기간의 “구식” 관측은 경복궁에서, “신식” 관측은 러시아공사관 및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 통감부 재정고문의 자택에서 실시된 관측 결과를 뜻했다. 비교 결과 전반적으로 “구식” 기록은 “신식” 기록보다 우량이 적게 기록되었고 특히 1월 평균 우량에서 격차가 있었다.³⁰⁾ 이러한 작업을 통해 와다는 1770년 이후 우량기록 수치를 조절해서 월별 강우량과 월별 강우 일수를 표로 정

27) 같은 글, 14쪽.

28) 和田雄治, “最近百四十年間ノ京城雨量”, 『朝鮮古代觀測記錄調查報告』, 30-78쪽.

29) 같은 글, 38-40쪽. 1904년 인천 등지에서 일본인이 기상관측을 시작하기 전의 기상기록은 中央氣象臺, 『韓國氣象一斑』(1905); 和田雄治, 『京城氣象一斑』(東京: 大日本氣象學會, 1905) 등에 정리되어 있다.

30) 和田雄治, “最近百四十年間ノ京城雨量”, 38-40쪽.

리했다.³¹⁾ 이와 같은 와다의 작업은 그가 조선왕조가 남긴 우량기록을 한반도의 기상을 알려줄 데이터로 보았고, 이를 실제로 활용할 목적에서 과거의 기록을 분석했음을 보여준다.

와다는 비록 ‘근대기상학적’ 관점에서 수정을 가하긴 했지만 경성의 우량관측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신뢰했다. 그 이유는 『서운관지』 “번규(番規)”에 기록된 벌칙을 포함한 조선 왕조의 엄격한 관측규정 때문이었다. “번규”는 측후 담당자의 사무규정으로, 관측 사항, 보고 형식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또 관상감의 업무는 전통적으로 극히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가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따라서 와다는 조선시대 측후 담당자가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³²⁾ 조선시대 중엽 이후 왕조가 전반적인 정치적 퇴행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상감의 관료들은 착실히 직무를 수행했고, 때문에 지금까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이 남을 수 있었다고 분석한 것이다. 우량관측 기록은 제도적인 규율을 갖추어 연속적이고 꾸준한 관측이 이루어졌을 때만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했던 그는 당시까지 상세한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 경성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성의 우량관측기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³³⁾

이렇듯 와다에 의한 일련의 조선기상학사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방대한 사료를 수집·정리했다는 점인데 이것이 가능했던 일차적 요인은 와다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제국관료였다는 사실이다. 러일전쟁 이후 조선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시작한 제국일본은 조선의 문화적 유산까지 점차 ‘소유’하기 시작했고, 관료였던 와다는 비교적 쉽게 귀중한 사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둘째, 우량관측, 하천 수위 측정(수표), 천문관측, 지진 등 조선의 천문·기상에 관한 기록들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조선시대 이루어진 기상사업의 가치를 ‘근대과학’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와다가 높이 평가한 점은 전국적인 관측제도의 정비로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통일된 기기를 이용해서 우량관측을 실시하여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일에서 와다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가 보기에 세종과 영조에 의한 이와 같은 제도 마련은 ‘근대적 기상사업’과 비견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조선시대 기상사업

31) 같은 글, 65-78쪽.

32) 和田雄治, “朝鮮古代ノ雨量觀測補遺”, 14-19쪽.

33) 같은 글, 25-26쪽.

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조선기상학사를 평가하는 와다의 잣대에서 ‘근대기상학에 얼마나 근접해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기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III. 조선인의 대변자로서의 역사연구

조선에 대한 일본 학자들의 학술적 연구는 조선의 강제적 개항을 전후하여 ‘정한론(征韓論)’ 논의가 최고조에 달한 1870년대부터 활발해졌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를 비롯한 탈아론자(脫亞論者)가 대두했을 즈음부터 일본이 후진적인 동양 각국을 이끌어갈 동양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되었고, 이를 학술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과의 비교연구가 경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³⁴⁾ 그 대표적인 연구로 후쿠다 도쿠조(福田德三)의 조선경제사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조선의 경제가 현저하게 후진적이어서 일본에 의한 문명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이후 일본 지식인의 조선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조선의 ‘후진성’ 및 ‘정체성(停滯性)’을 부각시키면서 일본에 의한 ‘문명화 사명(civilizing mission)’의 필요를 강조하는 담론은 이후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시작한 뒤에도 지배의 정당화를 위해 계속 이용되었다.³⁵⁾ 이와 같은 ‘조선정체론’ 담론은, 대학에서 조선사가 제도적으로 연구되기 이전에 후쿠다와 같은 학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조선사 연구를 시작한 시점부터 형성되면서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지녔고 널리 공유되었다.³⁶⁾

34) 旗田巍, 『日本人の朝鮮觀』(東京: 勁草書房, 1969), 31-35쪽; 趙東杰, “植民史學의 성립 과정과 近代史敍述”, 『韓國民族主義의 발전과 獨立運動史研究』(지식산업사, 1993), 31-96쪽.

35) 메이지부터 다이쇼 시기 일본 학자의 조선연구에 관해서는 櫻井義之, 『朝鮮研究文獻誌 - 明治 大正編』(東京: 龍溪書舍, 1979)에 잘 정리되어 있다.

36) 1910년 ‘병합’이 실시된 당시에도 일본의 많은 언론들은 ‘조선정체론’을 바탕으로 ‘동화’를 주장했다. 山中速人, “朝鮮「同化政策」と社會學的同化 下: ジャーナリズムをとおしてみた日韓併合時の民族政策論の構造”, 『關西大學社會學部紀要』 46권 (1983), 297-308쪽 중 298-302쪽. 조선사가 대학에서 제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 이후의 일이다. 조선사 강의는 도쿄제국대학에서 몇 차례 개설된 적이 있었지만, 독립적으로 조선사만을 다루는 학과는 교토제국대학에서 1916년 조선사강좌가 개설된 것이 최초였다. 中見立夫, “日本的「東洋學」の形成と構圖”, 『「帝國」日本の學知 第3卷 東洋學の磁場』(東

대만에 이어 조선을 ‘획득’하기 위해 시작된 러일전쟁을 계기로 한반도에 파견된 제국관료 와다 유지도 조선 후기 정치 상황을 “악정(惡政)”이라고 표현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위와 같은 ‘조선정체론’으로부터 적잖은 영향을 받았음은 분명하다.³⁷⁾ 하지만 애초 조선의 기상기록에 와다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조선의 ‘정체성(停滯性)’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상업무상의 실용적인 필요성과 기상학자로서의 지적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처음으로 한반도를 방문한 이유는 1899년 극동지역의 기상관측 현황을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따라서 관상소(뒤에 경성측후소)에서 수행되던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함께 과거의 기상데이터도 필요했다.³⁸⁾ 러일전쟁을 계기로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일본에게 기상데이터의 수집은 필수였다. 1904년 한반도 연안 다섯 곳에 설치된 임시관측소는 체계적인 기상관측을 통해 얻은 기상 정보를 일본 육해군에 제공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으며, 조선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가 시작된 러일전쟁 후에는 원활한 통치를 위해 한반도 각지의 지리·기후 파악 등 기상 정보가 중요했다.³⁹⁾ 또한 와다가 조선의 기상관측에 관심을 가진 데에는 개인적인 지적 호기심도 크게 작용했다. 이 호기심은 프랑스 유학을 계기로 갖게 된 홍수경보와 폭풍경보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890년대 홍수경보와 폭풍경보에 관한 글을 썼을 때 와다는 평소의 우량관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우량계에 관한 글을 쓸 정도로 우량관측에 큰 관심을 보였다.⁴⁰⁾ 러일전쟁 이전에는 러시아의 방해로 인해 와다는 “안타깝게도” 조선의 기상 자료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었지만 조선 기상학사에 대한 그의 탐구심은 여전해서 러일전쟁이 끝난 후에 비로소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자 매우 기뻐했다.⁴¹⁾

1905년 3월, 당시 대한제국 학무국(學務局) 고문을 맡고 있던 시데하라 다이타(幣原坦)를 통해 다시 관상소에 들어가게 된 와다는 오래된 천문기기, 측우기 등

京: 岩波書店, 2006), 13-54쪽 중 41-42쪽. 도쿄제국대학에서 동양사학과 관련 학과의 설립 과정에 관해서는 東京帝國大學, 『東京帝國大學學術大觀 總說 文學部』(1942), 286-303쪽을 참조할 수 있다.

37) 和田雄治, “韓國と氣象”, 『韓國中央農會報』 4권 2호 (1910), 7-11쪽. 고고학회 회원이기도 한 와다는 도쿄제국대학 인류학교실의 쓰보이 쇼고로(坪井正五郎) 교수나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8) 和田雄治, “東清西韓渡航記”, 『氣象集誌』 19권 2호 (1900), 110-114쪽.

39) Takuya Miyagawa, *op. cit.*, pp. 141-144.

40) 和田雄治, “雨量計問題”, 『氣象集誌』 13권 5호 (1894), 250-255쪽.

41) 和田雄治, “朝鮮古代の觀測”, 261쪽.

을 ‘발견’했지만, 여전히 주권이 대한제국에 있어서 사료가 공개되지 않아 자세한 조사를 실행할 수 없었다. 와다는 관측기기에 관한 정보를 관상소장 이돈수(李敦修)에게 물었지만 그는 “모르겠다”고만 대답했다고 한다.⁴²⁾

1910년 조선이 ‘공식적’으로 ‘병합’된 것을 와다는 지금까지 대한제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되어 온 것들을 자유롭게 조사할 기회로 보았다. 그는 때로는 스스로 관상소에 들어가기도 했고 또 경성측후소 직원들에게 관상소의 조사를 명령하여 조선의 기상사업에 관한 사료 발굴을 계속했다. 그 결과 측우기와 같은 관측기기, 『王朝實錄』이나 『承政院日記』, 『增補文獻備考』, 『風雲記』 등 다양한 고문헌 기록들이 ‘발견’되었고 그는 당시의 놀라움과 기쁨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내가] 명령한 물품은 보이지 않으나, 한 창고 속에 아주 더럽고 난잡하고 오래된 기록과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는 일훈(日暈)의 그림 등 여러 가지 적혀 있다는 보고가 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고 극히 소중한 것이니 조심해서 인천으로 보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관상감의 원부(原簿)에 매일 시간을 정해서 그 당사자가 천문기상에 관한 일을 모두 적어 놓은 것이며, 다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기계(器械)를 잃어버린 것은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이 기록을 얻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⁴³⁾

이렇듯 사료를 입수할 즈음까지만 해도 조선의 기상기록에 대한 와다의 관심은 기상사업상의 필요성과 개인적 호기심의 측면이 강했지만, 이후 조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명인으로서의 책임감·사명감’에 대한 강조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이돈수의 대응에 관한 서술에서 드러났듯이 와다의 눈에 조선인들이 측우기나 귀중한 사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와다는 방대한 사료를 모아 연구를 진행했는데,⁴⁴⁾ 그토록 많은 사료

42) 같은 글, 262쪽. 이돈수의 답에 대해서는 와다의 언급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사실 천문기기를 이용해야만 가능한 달력이 편찬되고 있었고, 또 와다가 출판한 『京城氣象一斑』(1905)에서 경성의 우량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 모두가 그 전 해까지 관상소 직원들이 측우기를 이용하여 우량관측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관상소장인 이돈수의 아무것도 모른다는 대답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며 일본에 대한 소극적 저항의 한 형태로 짐작할 수 있다.

43) 같은 글, 263쪽, 강조는 인용자.

44) 와다가 고대 천문기상 관측기록을 조사하기 위해 이용한 자료는 매우 방대한데, 『朝鮮古代觀測記錄調查報告』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은 다음과 같다. 『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增補文獻備考 象緯考』, 『風雲記』, 『天變抄出臚錄』, 『國朝實鑑』, 『測

를 관리하면서 연구하는 일은 그가 만난 조선인들에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대부분의 사료들이 오랜 세월 “질서 없이” 관리되었기 때문에 우선 와다는 사료들을 소독하여 제본한 다음에 연대순으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다.⁴⁵⁾ 애초 지적 호기심과 기상학적 필요성 때문에 시작된 연구였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와다에게 점차 조선인의 ‘무능함’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와다가 조선의 역사연구를 제국의 학자인 자신의 과제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보급’ 자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이를 체계적으로 이용하여 역사연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다. 『조사보고』 출간의 책임자였던 제2대 인천관측소장 히라타 도쿠타로(平田徳太郎)는 러일전쟁 당시 조선인들이 자기 조상의 위대한 업적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업적이 단지 과거의 유물로서 묻혀 버릴 수도 있는 상태였다고 말하면서, “독창적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적 능력이 탁월했던” 과거의 조선인과 그렇지 못한 현재의 조선 사람들의 차이를 강조하기도 했다.⁴⁶⁾

와다가 ‘무능한 조선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데에는 그가 관측기기 및 사료를 처음 접할 때 한국정부와 중개 역할을 해준 시데하라 다이라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시데하라는 1893년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국사과(國史科)를 졸업한 뒤 동대학 교수로서 최초로 조선사를 강의했고, 1905년에는 대한제국 학부에서 학정참여관(學政參與官) 학무고문(學務顧問)으로 근무하며 “조선교육개량안(朝鮮教育改良案)”을 제출하는 등 식민지조선에서 교육정책의 기초를 닦아 교육계에서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⁴⁷⁾ 한국사와 관련된 저서로 『日露間之韓國』(1905), 『韓國政爭志』(1905) 등을 저술했고, 특히 『한국정쟁지』는 선조(宣祖) 이후 수 백 년 동안 당쟁이 끊이지 않아 조선이 정치적으로 퇴행했다고 주장한 책으로, 와다에게 적어도 조선 관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데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⁴⁸⁾

이리하여 지적 호기심과 군사 전략 및 식민지 통치라는 실용적 필요성에서 출발한 와다의 조선기상학사 연구는, 근대기상학 지식에 근거하여 과거의 기상데이

雨器銘, 『書雲觀志』, 『三國史記』, 『高麗史』, 『宮內府日記』, 『秘書院日記』, 『東宮日記』, 『奎章閣日記』, 『祈雨祭謄錄』, 『星變錄』, 『星變測候單子』 등이다.

45) 和田雄治, “朝鮮古代の觀測”, 264-265쪽.

46) 平田徳太郎, “緒言”, 『朝鮮古代觀測記錄調查報告』, 1-2쪽.

47) 櫻井義之, 『朝鮮研究文獻誌 明治 大正編』, 243-244쪽; 阿部洋, “別集「舊韓末教育史資料 - 關係文書」”, 『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 第63卷』(龍溪書舍, 1991), 3쪽.

48) 幣原坦, 『韓國政爭志』(1905; 복각판, 龍溪書舍, 1996).

터를 분석하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전근대적인’ 조선인들을 대신해서 과거를 복원해야 할 작업, 즉 문명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 사이의 지적 격차를 보여주는 일로 그 성격이 변화했다. 이러한 와다의 태도로부터 1880년대 이래 일본 역사학계에서 널리 퍼진 경향, 즉 서양 제국들이 지배하는 학술사회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참여할 자격을 가진 일본이 동양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⁴⁹⁾ 예를 들어 일본에서 대표적 ‘동양사’ 학자로 대두한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연구에서도 ‘동양의 대변자로서의 일본인’이라는 ‘일본식 오리엔탈리즘’이 잘 나타났다. 제국일본이 영토를 확대해 감에 따라 영향력이 커진 동양사학의 창시자 시라토리는 “동양에 대한 연구는 동양인이 술선해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학자 강상중의 분석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인식은 “스스로를 표상할 줄 모르는 ‘동양인’ [=조선인, 중국인]을 대신해서” 그들의 존재를 ‘타자’인 서양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일본인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었다.⁵⁰⁾ 와다가 『학술보문 제1권』에서 여러 언어로 글을 쓴 것이나 *Nature*에 조선의 우량관측기록을 소개하는 글을 투고한 것은 대외적으로 그가 조선의 대변자임을 알리는 상징적 행위가 되었다.⁵¹⁾ 이러한 와다의 의도는 『학술보문 제1권』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문에 담은 것이 반드시 기상학에 관한 것이 아님은 본 관측소가 한반도에서의 고대 측후학(Sciences of Observations)의 발달 연혁까지 조사하여 과학사의 자료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일영독불어 등을 채용한 것 역시 널리 학자들에게 편의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⁵²⁾

와다는 측우기를 이용한 우량관측 제도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속적인 관측 기록은 학술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보기에 조선인에게는 관측기록을 기상데이터로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성과를 발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자신이 대신해야 할 과제로 여겼다.

49) 桂島宣弘, “近代國史學の成立”, 『思想史の十九世紀: 「他者」としての徳川日本』 (東京: ぺりかん社, 1999), 265-291쪽.

50) 姜尙中, 『オリエンタリズムの彼方へ』 (東京: 岩波現代文庫, 2004), 142-144쪽.

51) Yuji Wada, “Scientific Memoirs of the Korean Meteorological Observatory,” *Nature* 85 (1911), pp. 341-342.

52) 和田雄治, 『韓國觀測所學術報文 第一卷』, 1쪽, 강조는 인용자.

와다에 의한 조선기상학사 연구의 중요한 특징은 조선시대 기상관측 제도에 대한 높은 평가와 관측내용에 대한 ‘근대과학’적인 분석이다. 즉, 관측제도를 만든 세종과 그 제도를 부흥한 영조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을 보낸 반면, 관측기록들을 기상데이터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근대기상학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조정해야 했다. 이를테면 와다는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우량관측법 및 기록방법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구식”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이 실행하고 있는 “신식” 관측법 및 기록법과 명확히 구분했다.⁵³⁾ “구식” 관측법인 측우기의 눈금은 최소 3mm(1푼) 정도이며 그 눈금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정확하게 1mm까지 잴 수 있는 20세기의 관측법과 달랐다. 또 측우기에 쌓인 빗물의 양을 확인하는 간격 등 관측시간도 당시 일본이 시행하고 있던 것보다 엄격하지 않았다.⁵⁴⁾ 이와 같은 평가 및 분석은 과거의 관측제도와 근대의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근대기상학이 과거 조선에 비해 얼마나 발달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 즉 와다가 보기에 이는 과거의 기록 보관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동시대 조선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와다는 자신의 과거의 성과를 논하고 평가할 자격을 조선인에게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학술보문 제1권』 및 *Nature* 등에 와다가 쓴 측우기와 우량관측 기록에 관한 기사는 해외에서 널리 주목을 받았다. 와다 스스로 『조사보고』에서 밝혔듯이, 와다의 보고를 읽고 관심을 가진 서양 학자들은 경성의 데이터에 관해 와다에게 문의했고 때로는 각지에서 이루어진 우량관측의 역사자료를 와다에게 보내기도 했다.⁵⁵⁾ 조선의 기상학사에 관한 세계적인 학술 교류가 와다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리하여 조선의 대변자로서 와다의 자각은 더욱 심화·내면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시대 조선인은 ‘말할 수 없는 타자’로 전락했다.

IV. 일본사로서의 조선기상학사

와다의 조선기상학사 연구는 기록 그 자체와 그 기록을 가능케 한 제도라는 두

53) 和田雄治, “最近百四十年間ノ京城雨量”, 38쪽 등.

54) 和田雄治, “朝鮮古代ノ雨量觀測補遺”, 14-21쪽.

55) 같은 글, 22쪽.

가지 측면에 대한 평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평가가 서문에서 인용한 “우리나라가 크게 자랑스러워하는 바”라는 그의 표현에서 나타나는 ‘일본사로 포섭된 조선기상학사’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었을까? 비록 ‘병합’을 통해 영토는 제국의 일부가 되었지만, 식민지의 과거가 어떻게 제국의 역사로 통합될 수 있었을까?⁵⁶⁾ 이를 살펴보기 위해 당시 일본 역사학계가 동아시아의 역사에 대해 갖고 있던 관점과 비교하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주도한 일본 동양(사)학은 이데올로기로서의 유교를 공통항으로 삼아 일본 문명의 기원을 고대 중국에 두고 ‘동양’이라는 틀에 일본사를 귀속시키려 했다. 하지만 당시 동양사학자들에 따르면, 이후의 역사에서 발생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일본은 중국과 다른 길로 나아가 다른 문명·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때문에 문명의 기원을 공유하면서도 현재에 이르러서 한걸음 빨리 ‘근대화’를 달성한 일본은 아시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⁵⁷⁾ 이런 의미에서 일본 동양학은 문화적 기원에 있어서 중국사와 일본사를 통합할 수 있었고, 동시에 현재에 있어서는 그 둘을 다른 존재로 취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상관측이라는 측면에서는 조선과 일본이 같은 기원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웠다. 와다는 기본적으로 조선의 문명 및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었지만, 유일하게 우량관측만 세종의 독창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⁵⁸⁾ 따라서 동양사학자가 취한 전략, 곧 공통된 문화적 기원을 찾아내는 (혹은 만들어내는) 전략으로는 와다가 조선기상학사를 일본사의 일부로 간주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와다가 택한 방법은 세종 및 영조에 의해 관측이 시작된 당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조선의 기상사업을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상학적으로 유용한 조선의 기상기록 및 그것을 만들어낸 제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근대적 기상사업과 연속성을 지니는 것임을 강조하는 방법이었다. 와다가 기상학사 연구를 시작했을 무렵, 조선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퇴행 혹은 정체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그에게 중요한 대목은 정치적 상황이 어떠했던 간에 우량관측 기록과는 무관하다는 점이었다. 와다의 평가는 ‘과학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적용되었고 정치

56) 도쿠가와 시키 우량관측을 소개한 곳에서도 와다는 “우리나라(我國)”라는 동일한 표현을 썼다. 和田雄治, “朝鮮測候史略”, 170쪽.

57) Stefan Tanaka,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박영재·함동주 옮김,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2004), 173-223쪽.

58) 和田雄治, “朝鮮古代ノ雨量觀測補遺”, 24쪽.

사나 경제사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었다. 즉, 와다는 ‘근대문명’의 상징물인 ‘과학’이라는 척도를 통해 조선의 우량관측 및 기록을 조선의 역사에서 탈맥락화(decontextualize)함으로써 근대 기상학과 연속성을 갖게 할 수 있었다.

와다가 이와 같은 역사서술을 하게 된 데에는 기상데이터의 축적을 중시하는 기상학 분야의 학문적 특성도 작용했다. 19세기 후반부터 전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세계 각지에서 기상관측 및 데이터 수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각국의 기상학자들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기도(weather map)를 그려 일기예보를 실시하고 각지의 기후를 파악하려 했다.⁵⁹⁾ 와다는 약 140년 동안 이루어진 경성의 우량관측 기록이 세계 기상학계에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강우 경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⁶⁰⁾ 그는 조선의 기상자료가 근대기상학의 관점에서 세계 기상학계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는 와다가 역사가가 아니라 기상학자로서 조선기상학사에 접근했음을 뜻한다. 기상학자의 관점에서 조선기상학사를 바라본 와다는 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할 수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이조(李朝) 초기에 있어, 구주(歐州)보다 약 200년 앞서, 명주(明主) 세종의 창의로 우택(雨澤) 보고의 제도를 마련하고, 널리 측우기를 전국에 배치하며, 또 수표를 하천에 세우고, 그때마다 [관측]보고를 수집했다는 사실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 절동비밀국(絶東秘密國)에서 이 진보적 제도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불행히도 선조 때 전란으로 인해 이 미거(美舉)도 중절되어 관측 성적도 병선(兵燹)으로 인해 그 흔적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200여 년 뒤에 다시 영조의 민완에 의해 재흥을 보기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이래 140여 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경성의 우량관측은 연면으로 끊이지 않고 마침 세계에서 가장 긴 관측기록을 이루게 되었다. 이제 조선총독부는 더욱 반도 경영에 노력하며, 측후 계통도 점차 정비를 이루려 하고, 우량관측소의 수는 가까운 장래 300 이상이 될 것이라고 들었다. 좋다. 역사의 반복이란 실로 나라의 동서, 민족의 여하를 불문한다.⁶¹⁾

59) Frederik Nebeker, *Calculating the Weather: Meteorology in the 20th Century* (San Diego: Academic Press, 1995), pp. 11-26. 영국에서 전신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일기예보 체계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Katharine Anderson, *Predicting the Weather: Victorians and the Science of Meteorolog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를 참조할 것.

60) 和田雄治, “朝鮮古代ノ雨量觀測補遺”, 8-9쪽.

61) 같은 글, 29쪽, 강조는 인용자.

여기서 와다는 세종 및 영조 시대에 이루어진 관측사업과 조선총독부에 의한 관측사업을 연속적인 것으로 서술했다. 15세기 세종이 만들어낸 우량관측 제도는 몇 차례 전란으로 인해 단절되었다가 영조가 부활시켜 다시 시작되었지만, 와다가 한반도에 온 즈음에는 측우기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업의 진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⁶²⁾ 그러나 과거 영조가 그랬던 것처럼 총독부, 곧 제국일본이 그러한 상황을 이어받아 관측사업을 부활시켜 이제는 사업을 더욱 확대해 가고 있었으며 그 모습을 와다는 “역사의 반복”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세종, 영조, 조선총독부는 모두 조선에서 기상관측사업의 전환점을 이룬 것이며 각 전환점 사이의 기간에는 사업은 쇠퇴했다. 이 역사서술에서 조선기상학사는 조선사의 맥락에서 논의되었다기보다는, 관측제도와 우량기록이라는 과학적·기상학적 요소만 부각되어 일본에 의한 기상사업의 역사적 위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서술되었다.

이리하여 조선기상학사는 제도와 우량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인에 의한 기상관측과의 연속성 강조를 통해 일본사의 일부처럼 표현되었고 이는 조선기상학사의 ‘동화(同化)’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동화정책이란 문명화를 이루지 못하고 야만에 속한 조선인을 일본인과 같이 높은 문명 수준으로, 같은 제국 신민으로 끌어올려 주겠다는 논리로서,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 기간 일본이 기본적인 식민정책으로 표방한 것이다.⁶³⁾ 그러나 통감부 설립을 전후해서 조선을 방문한 일본인들의 관찰 보고에서 조선을 야만시한 시각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시기 일본인의 글에서 엿볼 수 있는 조선에 관한 담론은 대만이나 아이누 사람들과 달리 조선인이 ‘동화 가능한’ 사람들임을 강조하는 데 중점이 있었다. 조선은 일본보다 문명 수준이 떨어지긴 해도 일본의 지배와 문명화 사업을 통해 충분히 문명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많은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⁶⁴⁾ 이와 같은 경향은 기상학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일 수 있다. 와다는 조선시대 기상관측 및 기상기록이 ‘문명국의 역사’로 서술될 수 있을 정도로 조선사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간주했다. 조선기상학사 만큼은 그가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었고, 또 문명국의 역사로서 서술할 수 있었다.

62) 和田雄治, “世宗英祖兩朝ノ測雨器”, 『朝鮮古代觀測記錄調査報告』, 4-5쪽.

63) 권태익, “1910년대 일제의 조선 동화론과 동화정책”, 『한국문화』 44권 (2008), 99-125쪽.

64) 같은 글, 100-106쪽에 있는 각 인용문을 참조할 수 있다.

동화될 것을 인정받은 ‘자랑스러운 역사’는 제국의 역사로서 이를 해외에 알려야 했으며 그 가치 역시 널리 인정받아야 한다고 와다는 생각했다.

우리 신(新) 영토에서만 140여 년 전의 우량표(雨量表)를 갖춘 셈이며, 기상학상 이와 같은 귀중한 재료를 갖는 자는 오직 우리 제국 뿐이어서 크게 천하에 자랑할 만하다.⁶⁵⁾

와다가 『학술보문 제1권』 및 *Nature* 등에 서양 언어로 측우기와 우량관측기록에 관한 기사를 쓴 것은 제국일본이 영토 내 한 지역의 오래된 기상데이터를 보유함을 보여줌으로써 서양 기상학과 동양을 대표하는 일본 기상학계가 대등한 위치에 있음을 과시하려는 시도였다.

와다는 서양 학자들과의 학술적 교류를 통해 각국의 우량관측 기록에 관한 자료를 얻었고 그 자료들과 경성의 기록을 비교연구하기 시작했다. 인도, 팔레스티나, 에도, 로마, 파리, 런던 등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우량관측은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다”, “기록이 짧고, 길어도 100년이 넘는 기록이 없다” 등과 같은 이유 때문에 와다가 보기에 경성의 140년간의 기록보다 우월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⁶⁶⁾ 와다는 비교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해외 각지의 기록이 “학술적 가치로서 도저히 경정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다”고 자신 있게 글을 맺었다.⁶⁷⁾ 이제 조선기상학사는 제국일본의 역사와 문명 수준을 다른 제국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대등한 위치로 승화시켜주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와다가 ‘과학적’이고 ‘근대적’인 용어와 개념을 이용하여 과거 조선의 기상사업을 평가함으로써 그 과거는 일정한 권위를 부여받았고, 권위가 부여된 과거로부터 사업을 계승한 제국일본의 기상사업은 다시 권위 있는 조선의 과거로부터 보증을 받게 되는 순환 작용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와다는 조선시대에 관상감에서 이루어졌던 관측사업이 권위와 “위엄(威嚴)” 있는 일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⁶⁸⁾ 관상감과 총독부관측소에서 진행된 사업의 연속성을 주장한 것은 관측을 담당하는 기관이 권위까지 계승한 것을 뜻했다.⁶⁹⁾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지적

65) 和田雄治, “珍奇なる記録の發見”, 『朝鮮』 35권 (1911. 1), 35-37쪽.

66) 和田雄治, “朝鮮測候史略”, 169-170쪽.

67) 和田雄治, “朝鮮古代ノ雨量觀測補遺”, 26쪽.

68) 같은 글, 14쪽.

69) 특히 조선총독부관측소에 계승받는 데 왕조의 권위를 계승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Takuya Miyagawa, *op. cit.* pp.

했듯이 서양에게 ‘오리엔트’가 존중받는 고대이면서 유럽 문명사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제공하고 역사의 진보를 증명해 주는 존재였다면,⁷⁰⁾ 일본의 동양학자에게는 중국(지나)이 그와 동일한 역할을 했고, 와다에게는 식민지조선 기상학의 ‘위대한’ 역사가 그 역할을 맡은 것이다.

V. 맺음말

‘최초의’ 한국과학사 연구자 와다 유지의 업적은 당시의 사회적·사상적 상황을 질게 반영한 만큼 여러 가지 함의를 지닌 것이었다. 와다의 연구는 한편으로 당시 제국일본의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아시아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많은 일본 지식인에 의한 조선사 서술의 경향에서 벗어난 측면도 보였다. 우선 기상학자이자 총독부 기술관료로서 조선의 기상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와다의 조선기상학사 연구는 그 수행과정에서 ‘문명국’ 출신자로서 스스로를 표상할 수 없는 조선인들의 문화를 대변해 주는 작업으로 변화했다. 그는 방대한 사료를 수집하여 ‘근대과학’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 우량관측을 높게 평가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작업은 동시대 조선인들로서는 수행 불가능한 일이었고, 동시에 그들의 낙후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조선 인식은 당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동양사 연구자들의 아시아 인식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와다의 연구가 제국일본의 학술적 풍토와 유사한 특징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와다의 연구는 기상사업 제도와 우량관측 기록의 연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시대 기상사업을 제국의 역사의 일부로서 표상하는 작업이 되었다. 조선의 기상기록은 결과적으로 서양 문명에 대항할 제국의 도구로서 역할을 부여받았고 그러한 의미에서도 와다의 조선기상학사 연구는 당시 일본의 동양학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동양사 연구가 일본과 중국의 공통된 기원을 찾아내어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려 한 데 반해, 와다의 역사서술은 기상학에 한해서 뿌리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국의 역사로 통합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146-147.

70) Edward Said,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1979).

그와 같은 역사서술은 퇴행·정체된 것으로 간주된 조선의 정치·경제에서 기상학을 분리하여 예외적인 존재로 취급함으로써 가능했다. 이리하여 조선기상학사에 대한 와다의 칭찬은 조선의 통치자이자 소유자, 그리고 전통적 관측사업의 계승자이기도 한 제국일본에 대한 극찬으로 귀결되었다. 그것은 와다가 세계에서 유일한, 140년이 넘는 경성에서의 우량관측 기록에 대해 “우리나라가 크게 자랑스러워하는”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 ‘자랑스러운 역사’는 외국의 기상학사보다 훌륭한 제국의 대표자로 표상되었다. 식민지조선의 기상관측제도 구축을 주도한 기상학자 와다에게 조선의 기상관측 기록은 단지 기상데이터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하지만 와다의 연구가 다분히 제국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었다고 해도, 조선시대 기상사업을 칭찬하고 기상제도의 연속성을 강조한 그의 역사서술이 곧 식민통치에 직결되었다거나 지배의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일본 연구자들은 와다의 연구에서 강조된 이념적인 측면보다는, 한반도의 기상학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우량데이터를 더 중요시했으며, 와다가 보여준 조선의 ‘위대한 과거’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예컨대 히라타 도쿠타로는 『조선의 기상(朝鮮の氣象)』(1919)에서 한반도의 기후를 파악하기 위해 1904년 이래 15년간 축적된 기상데이터와 더불어 와다에 의해 밝혀진 경성의 우량기록도 유용하게 이용했음을 밝혔지만, 과거의 조선에 대한 평가나 역사적 연속성과 연결시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⁷¹⁾ 한반도의 기상에 관한 히라타의 연구는 무엇보다 효율적인 식민통치라는 목적을 지닌 것이었기 때문에,⁷²⁾ 그가 와다의 연구에서 ‘중립적’인 기상데이터만 추출하며 이용했다는 사실은 와다의 연구가 역사연구라기보다 기상학적 업적으로서 식민통치에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도리어 와다가 부각시킨 세종대의 ‘빛난 업적’은 1920년대 후반부터 소위 조선학운동이 점차 고조되면서 ‘조선의 자랑’을 역사에서 찾기 시작한 조선 지식인들에 의해 전유되었다. 그들은 훈민정음, 인쇄기술, 거북선 등 조선의 대표적인 ‘발명품’들과 함께 측우기도 언급했다. 측우기를 소개한 대부분 글들은 측우기의 발명에만 주목하고 와다가 지적인 관측제도나 우량기록에 관한 언급은 거의 찾을 수 없지만,⁷³⁾ 1934년 『동아일보』에 조선의 독창성과 발명품을 소개하는 글을 연

71) 平田徳太郎, 『朝鮮の氣象』(京城: 氣象講話會, 1919), 1-2쪽.

72) Takuya Miyagawa, *op. cit.*, pp. 148-150.

73) 1930년대 과학운동을 이끈 김용관의 글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K.C 生(김용관으로 추정

재한 이윤재가 측우기와 함께 서양보다 앞서 세종대 이래 체계적인 우량관측 제도가 실시되었음을 언급한 사실은 그가 와다의 연구를 참조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⁷⁴⁾ 또 이윤재의 글을 통해 많은 조선인들이 간접적으로 ‘조선의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측우기와 관측기록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윤재는 ‘조선의 자랑’이 일본인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고, 조선 지식인들이 찾으려 하던 ‘조선의 자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전유한 것이다.

와다의 역사서술에서 나타난 특징, 곧 ‘탈맥락화된 역사서술’은 홍이섭 등 한국인 1세대 한국과학사 연구자로 불리는 이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다.⁷⁵⁾ 그들은 와다를 최초로 한국과학사를 연구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그가 일련의 연구에서 기상관측 제도, 측우기 등을 논의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여 더 포괄적으로 한국과학사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나 와다와 이후 한국인 연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공통점은 ‘근대과학’이라는 잣대로 한국의 과학이 이룩한 보편적 성취를 찾아냄으로써 한국(조선) 과학의 우수성을 주장했다는 점이다.⁷⁶⁾ 한국과학사에서 ‘근대과학’적인 요소를 추출해 내는 방식은, 특히 세종대 과학기술을 논의한 연구에서 두드러졌는데, 조선의 과학기술이 ‘근대과학’에

됨), “科學朝鮮의 誕生”, 『科學朝鮮』 1권 1호 (1933. 6), 2쪽; 金容瓏, “科學戰線에 立한 朝鮮”, 『科學朝鮮』 3권 1호 (1935. 2), 2-6쪽. 김용관은 세종이 측우기를 만들어 전국에서 우량관측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만, 그의 서술은 측우기의 발명 자체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또한 김용관 이외에 측우기를 소개한 다른 글들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다.

74) 李允宰, “獨創과 發明 (九)”, 『동아일보』 1934년 12월 22일.

75) 서양과학사 학계에서도 1세대 과학사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성과로 *Isis* Vol. 100, No. 1 (2009)의 특집 “The Vision of George Sarton”을 참조할 수 있다. 사실 와다와 같은 역사서술은 그가 조선기상학사를 연구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서양 과학사 학계에도 볼 수 있었다. 당시의 과학사는 과학자가 과학자를 위해 쓰는 것이었고, 과학의 각 분야가 전문화된 19세기 후반 이후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 과거의 자연철학자들로부터 권위를 받으려 했다. 그들은 ‘이미 알려진 것’과 ‘새로 알아낸 것’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도 과거의 업적에 대한 서술을 중요시했는데, 동시에 둘 사이의 연속성을 잘 보여주어야만 자신의 연구의 정당성 혹은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와다의 서술에서도 당시 진행되고 있던 관측사업과 과거 조선의 사업 사이 연속성 및 차이 양 측면이 강조되었다. Peter Dear, “The History of Science and the History of the Sciences: George Sarton, *Isis* and the Two Cultures,” *Isis* Vol. 100, No. 1 (2009), pp. 89-93.

76) 그러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홍이섭의 과학관과 과학사 서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문중양, “홍이섭의 과학사 연구를 넘어서”, 『東方學志』 130권 (2005. 6), 31-63쪽을 볼 것.

얼마나 근접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서술로 이어졌다. 필자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세종대에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성과가 실제로 우수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종대의 과학기술을 한국 역사상 ‘예외적’으로 눈부신 것으로 평가하는 역사서술 방식이 이미 최초의 한국과학사 연구자인 와다에서 볼 수 있으며, 또 그것이 20세기 초 제국일본이 한반도에 발을 딛기 시작했을 때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와다가 “명군(明君)”이라 평한 세종이 문화, 학술 진흥을 독려함으로써 그 시기 “학술 기예의 진보는 전조[前朝: 고려]를 능가하며,” 한반도의 역사상 “황금시대”를 이룩해 냈다고 평가한 것은 후세의 한국과학사 서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⁷⁷⁾ 물론 해방 이후 한국과학사 연구에서 제국주의적 성격의 역사서술은 사라졌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사에서 기상학을 탈맥락화한 와다의 연구는 한국인 연구자들에 의해 ‘자랑스러운 한국사’를 구성하는 요소로 다시 탈맥락화되어 전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하여 와다의 조선기상학사 연구는 제국의 유산으로서의 성격을 잃어가면서도 오랫동안 한국과학사 연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이다.

77) 和田雄治, “世宗英祖兩朝ノ測雨器”, 1쪽.

<ABSTRACT>

The “Great History” of the Colony and the Prestige of the Empire:

Wada Yuji’s Study on History of Korean Meteorology

MIYAGAWA Takuya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Wada Yuji 和田雄治 (1859-1918), the first chief director of the meteorological network in colonial Korea, wrote some books and papers on history of Korean meteorology in 1910s, which were the very first study on history of Korean science. In his writings, he praised the invention of observation system and the long record of rainfall during the Chosŏn dynasty because such a long record could not be found anywhere else in the world. At the same time he represented history of Korean meteorological projects as a part of Japanese history, stating that “our country [Japan] must be proud of them.” Such expression was possible because Wada was influenced by intellectual tendency of the historians of Orient in Meiji Japan, and he believed that he was obligated to represent the great legacy instead of the “uncivilized” Korean people, who he thought were incapable of studying and representing their history by themselves. Also by decontextualizing the meteorological history and data from the historical context of Chosŏn, Wada could describe them as Japanese history of science. As a result, the decontextualized history of Korean meteorology functioned as one noteworthy element of the Japanese empire for cultural opposition to the Western empires.

Key Words: Wada Yuji, history of Korean meteorology, rainfall record, Japanese Orientalism, decontextualization of history